

크리스마스 트리

옛날 북유럽의 한 숲속에 나무꾼과 딸이 살았다. 이 소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숲을 몹시 사랑하여 언제나 숲속에 나가 숲의 요정들과 함께 놀았다. 추운 겨울이 와서 숲에 나갈 수 없게 되면 소녀는 요정들을 위해 문앞에 있는 잣나무(흔히 전나무라고 부르지만 바른 이름은 잣나무임)에 작은 촛불을 켜 두곤 하였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나무꾼인 소녀의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다. 깊은 숲 속에서 날도 어두워져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작은 불빛이 보였다. 불빛을 쫓아가니 다시 그 불빛은 사라지고 또 다른 불빛이 반짝였다. 이렇게 몇 번인가 불빛을 따라 가다 보니 어느새 자기 집 문앞에 딸이 밝혀둔 촛불 앞까지 무사히 다다르게 되었다. 이 숲속의 불빛은 소녀의 친구인 숲의 요정들이 소녀의 아버지를 인도해 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잣나무에 반짝이는 불과 여러 장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통 잣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71년 12월 25일, 그 해 크리스마스날 아침에는 우리나라 화재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서울에서도 초고층으로 분류되던 대연각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163명의 사망자를 낸 기록적인 사고였으며, 처참했던 이 사고는 우리나라 소방업무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LP가스의 고무호스 누설에 의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곳은 호텔 2층의 커피숍이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연소가 가장 먼저 확산된 곳은 최상층인 21층이었다. 일반상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엉뚱한 곳에서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

그 때까지의 소방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불을 끄는 것이 거의 전부였으나 이 화재가 남긴 교훈은 보다 과학적이고 다양한 소방업무를 필요로 하게 하였으며, 특히 사전 예방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하였다. 그리하여 주요 화재발생원이 되는 전기, 담배불과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가스, 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피난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업무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면 화재예방 안전점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火協)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소방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날은 우리나라 화재예방의 기틀이 된 火協을 탄생시킨 의미있는 날인 것이다.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트리..., 서구의 축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생각되는 유형 무형의 세가지 상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소재가 되는 잣나무와 이름도, 생김새도 비슷한 잣나무는 우리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에 생각나는 나무이다. 대보름 전날 잘 익은 잣 열두개를 바늘에 꿰어 각각 열두달의 이름을 정한 뒤 불을 붙여서, 불이 잘 타는 달은 일도 잘 풀린다고 믿었던 우리의 풍속도 흥미롭다. 이날, 아이들은 햇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동산에 뜨는 달을 맞으며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농촌에서는 쥐불놀이와 햇불싸움을 하며 풍년을 기원한다. (FILK)

〈金 東 一 / 기술관리부 차장〉